

D램 가격, U자형 회복세 보여...

1Gb 667MHz DDR2 1.13달러 ... 7월 성수기 수요도 뒷받침

D램 가격이 U자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주력 제품인 1Gb 667MHz DDR2의 고정 거래가격은 1.13달러로 5월 초 1.06달러에 비해 6.6% 올랐다.

2008년 12월 말에는 0.81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 2-4월에 걸쳐 0.94달러로 올라선 후 5월 초 1달러를 넘어섰다.

그래프 형태로 보면 급격한 V자형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U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물 거래가격은 1.24달러로 5월 초 1.26달러, 1.27달러에서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D램 고정가격이 1달러 이상을 유지하자 바닥을 쳤다는데 공감하면서도 6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추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7월부터 성수기가 이어지고 윈도우 7 출시를 앞두고 있어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공급 변수나 시장상황 등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6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2>